

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8.26.) >

- ◆ “층간소음 분쟁 끊이지 않는데”... 애매한 판정 기준 뜯어 고친다.
-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(49dB)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(49dB) 개편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,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	책임자	과 장	김영아 (044-201-3364)
		담당자	사무관	민경철 (044-201-4897)
			주무관	권준현 (044-201-3378)